

정재 낭비 막아... 포교활성화 신도증가

재정공개 사찰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조계종 사찰들은 1년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사찰 운영에 있어 사부대중 공동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한 사찰운영위원회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사찰운영위원회는 기존 협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조계종중앙총회는 6월 22일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6월 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 제1차 종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렇듯 조계종 내부서는 사찰 재정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조계종 사찰 중 일찍부터 사찰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정 투명성을 실천한 사찰들이 적지 않다. 이 사찰들의 공통점은 '재정공개' 원력을 세운 주지 스님의 적극적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투명한 재정공개는 재가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까지 이끌어내며 신도수 증가 등 사찰활성화는 물론 포교확대로까지 이어진다는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사찰재정을 공개한 사찰들을 살펴봤다. 대표적인 곳은 잠실 불광사다. 2000년

이전부터 월 1회 씩 한 달간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신도단체협의회 '명명회의'를 통해 한다. 재정공개에는 50여 신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며 사찰교무행정 프로그램인 '가람지키'서 월계표를 출력 배포한다.

불광사는 특히 2003년 종교단체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며 굳이 세금 부과

불광사, 외부회계 감사 실시 신도회 참여 '사찰운영위' 관리 소속감이나 주인 의식 고취

나 회계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지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단행했다. 또한 그 내역도 모두 신도들에게 철저히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주지 지정 스님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제1회 투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남 불은사도 재정 공개라면 빠지지 않는 투명성을 자랑한다. 불은사는 2007년 명진 스님이 주지를 맡았을 때부터 도

입했다. 현재 직영사찰 전환 이후에도 계속 중이다. 불은사 신도들이 사찰 재정과 관련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장 스님, 종무원 팀장급, 신도회 부장단(회장 부회장 부장급)까지 참여하는 1주일에 한 번 있는 종무회의서 재정문제까지 포함된 사찰운영의 모든 안건이 의결된다.

신도 재정공개는 한 달에 한 번 신도회 임원이 사찰확대회의에 참여해 주지 스님, 국장스님, 종무원 등과 함께 법무부에서 재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PPT 자료를 활용해 세부항목까지 상세히 공개 한다. 불은사는 아직까지 외부회계 감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감사 시 조계종 총무원서 전문가들이 파견돼 회계장부를 확인한다.

불은사 강민수 홍보실장은 "재정 공개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도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재정 규모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총회의원 법안 스님이 주지로 있는 종로 구기동 금선사는 20년 전부터 운영위를 구성해 재정을 신도와 사중에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있다. 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신도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도회 의원, 스님들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사찰 재정의 효율성이 분명히 높아진다"며 "무엇보다도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니 불사를 방만하게 할 수 없으며, 또 짜임새 있게 사찰이 운영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천안 성불사도 2000년부터 사찰운영위를 운영하며 사찰 재정을 100% 공개하고 있다. 특히 사찰 통장 관리의 경우 도장은 스님이, 통장은 신도회가 관리하도록 해 투명한 재정 관리는 물론 스님과 신도들 간의 신뢰감이 두터운 것이 자랑이다.

이외에도 부천 석왕사는 사찰운영위원회가 별도 없으나 10년째 수입지출항목별로 초하루나 정기법회에서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발표한다. 3년 전부터 재정 공개를 시작한 화계사는 사찰운영위가 관리하며 화계사보에 두 달에 한 번씩 내보낸다. 광명 금강정사도 1991년부터 월 1회 사찰 운영위원회를 열어 재정 공개를 한다. 강남포교원, 삼선포교원, 성남 정토사 등 일찍부터 재정을 공개하고 있는 사찰들은 포교에도 남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재가불자들에게 사찰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의식을 넣어 줌으로써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동심에서 피어나는 불심



나의 불국당을 찾아서 파라미터 청소년 리더십 캠프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하 불교스카우트) 창단 고별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개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42개 사찰의 청소년 1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포교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정식 인가 받은 불교스카우트창단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 위> 이밖에 강원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정남 스님)는 6월10일 강원여자고등학교에서 '2012년 강원도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회장 정남 스님을 비롯해 낙산사 주지 무운 스님 등 강원지역 스님들과 강원파라미터 회원 8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 아래 좌> 또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9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금산 대둔사원에서 파라미터 전국 간부학생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행사는 간부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 명상, 문화제지킴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 아래 우> 박재완·이은정 기자

“뼈를 깎는 노력, 제도 쇄신 이뤄낼 것”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 봉행... 자승 스님 다짐

조계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쇄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茶禮)'에서 추모사를 통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성과 쇄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정개혁을 위한 구조와 제도에 대한 쇄신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쇄신안의 구체적인 실천 의사를 밝혔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국사께서 선의 씨앗을 심어 선성이 만리에 가득해 금일에 이르렀다"며 "눈푸른 남자로 나투시어 그 명주가 다시 천개 만개 되게 하소서"라고 정정가풍이 다시 펼쳐지기를 기원했다.

이와 함께 다례에서는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의 행장 소개와 조계종 여장 동주 스님의 집전하에 거불, 청혼 등이 진행됐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헌다하고 있다.

으며 회계위원장 범등 스님과 교육위원장 현응 스님의 헌향,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헌다, 헌화 등이 이어졌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원로회의의 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교육위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도의국사의 수행가풍이 되살아나기를 함께 발표했다.

글=노덕현·사진=박재완 기자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 단독입후보

제25대 신도회장 7월 6일 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제25대 중앙신도회 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6월 18일 마감했다. 이번 중앙신도회장 선거후보에는 이기흥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신도회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

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5대 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회장은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이은정 기자

항일운동가단체, 김종필·MB 공개 질의

6월 21일 기자회견... 한일 협정 재협상 촉구

윤암 김성숙(태허스님)기념사업회가 주축으로 있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와 한일협정국민행동(상임대표 정화)은 6월 2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일협정 체결 47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필 씨와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김종필 씨가 공화당 사전조직과 운영 자금으로

일본에게 6천6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미 CIA 문서(1966년 3월 18일자)의 내용 등에 대해 진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박정희-김종필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비밀정치자금△김종필-오하라 메모 작성 경위 △대일청구권 역수의 비밀 결정 등 해외 기밀 기록 발굴 등을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 체험놀이터 여름방학 보내자

파라미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마련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파라미터는 7월 23-26일 경주 남산 일원에서 '제15회 파라미터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불교사·석굴암 등 사찰문화탐방을 비롯해, 연등, 연필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문화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또 팀빌딩 게임, 플래쉬몹, 명상체험, 1080배 등 공동체놀이와 신명활동과 명사 초청 특강, 백일장, 음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7월 24일-8월 2일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유림 4개교 탐방에 나선다. 학생들은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 바티칸시국을 방문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학생

들은 각 나라 도시별 독도알림으로 활동하며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파라미터 산하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이동명)에서는 7월 14일-10월 13일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킴이'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받은 후, 신정동, 현인동 등에서 지역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또, 수련관에서는 7월 14일, 28일 오후 3시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나래꿈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파라미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모집해 7월 1일부터 지킴이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함께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 내 문화재를 현장탐구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총무원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이사장 해운 (진주 봉래동 불광사) (이사진)	총무원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총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중앙총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불물사)	중앙총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교원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포교원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육원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무불,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교육원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사원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감사원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장전 법전사)	총무국장 관음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장전 법전사)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평리 약사사)	총무과장 청곡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평리 약사사)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증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敎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암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도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및장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신라불교미술관